1 자유연제 IV

소아 화상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부모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

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간호부, [1]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

이 경 숙·염 영 희[1]

(서론)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아화상환자의 충격적 경험(화상)으로 인한 행동반응의 정도를 측정하여, 보호자에게 미치는 불안과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 이다. **(대상 및 방법)** 2007년 7월 1일~ 8월 30일까지 H 화상센터에 화상 후 피부 구축으로 인한 재수술 및 급성화상으로 입원 된 소아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, 사용된 도구는 총 3개로 CBCL (Child Behavior Checklist), BAI (Beck Anxiety Inventory), BDI (Beck Depression Inventory) 였으며, 통계처리는 SPSS WIN 12.0을 사용하였다. **(결과)** 보호자의 불안정도 차이를 살펴보면, 소아성별은 남자인 경우가, 화상 종류는 열탕화상이, 화상 면적은 21-30% 이하인 경우가 높았으며, 수술 횟수는 한번도 한적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. 보호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불안 정도가 높았으며, 연령은 30대, 학력은 대학 이상이 높았다($p<.05$).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불안 정도가 가장 높았고, 소아를 위한 개인 사 보험은 1개 가입한 경우와 자녀가 1명일 경우 불안의 정도가 높았다. 보호자의 우울 정도 차이를 살펴보면, 화상 종류는 전기화상이 높았고, 보호자의 성별에서 여자의 우울 정도가 더 높았다. 보호자의 불안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설명력은 43.5%였으며, 소아의 사후행동 반응(B=.886, $p<.001$)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불안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의 설명력은 50%로 화상면적(B=1.250, $p<.05$), 교육정도(B=2.895, $p<0.5$), 가족 수(B=1.296, $p<0.5$), 가족형태(B=.753, $p<.05$)인 것으로 나타났다. 보호자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설명력은 27.5%로 소아의 사후행동 반응(B=.496, $p<.001$)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고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의 설명력은 46%로 화상면적(B=1.326, $p<.05$), 교육정도(B=2.965, $p<0.5$), 가족형태(B=.753, $p<.05$) 인 것으로 나타났다. **(결론)** 부모의 우울 또는 불안이 소아의 성장발달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계속적 연구와 소아의 충격적 경험으로 인한 행동 반응에 따라 소아의 성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겠다.